**마0530 Note**

**◆ ​이정표: 육신과 정욕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해결책 ​**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욕망과 취향을 다루는 일은 당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버리는 것만큼이나 아픈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에 못박다> <죽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지체에 해당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지체가 되어, 그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분께 접붙여져서, 그분의 피와 수액을 받아, 그분과 같은 체질로 변하여

그분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거듭남으로 성령님을 좇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당신 대신에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당신 대신에 해 주시지 않습니다.

당신보고 직접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며,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나사로에게 영을 되돌리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며,

무덤의 돌을 굴려 치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앵무새 같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타령만 계속하실 것입니까?

나무의 본질은 그 열매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마0716. 너희가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아보느니라(에피기노스코:어떤 표식을 알다,인식하다,전적으로 알게 되다,인정하다,알다,지각하다), 사람들이 가시나무들에서 포도들을, 아니면 엉겅퀴들에서 무화과들을 모으느냐?

마0717. 바로 그와 같이, 낱낱의 훌륭한 나무는 훌륭한 열매를 내나, 썩은 나무는 악한 열매를 내느니라.

마0718. 훌륭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낼 수도 없고, 썩는 나무가 훌륭한 열매를 낼 수도 없느니라.

마0719. 훌륭한 열매를 내지 않는 낱낱의 나무는 잘려 넘어져, 불속으로 던져지느니라.

마0720.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들로, 너희가 그들을 알아보느니라(에피기노스코:어떤 표식을 알다,인식하다,전적으로 알게 되다,인정하다,알다,지각하다)

Ω마0721. 내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낱낱의 자가 천국왕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신에 천국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믿음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